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6.10.12.(월) 배포 즉시	사진	○	자료	○	매수	3
담당부서	평화협력과 (평화교류팀)	과 장	우병배 (031-8030-2410)				
		팀 장	이희훈 (031-8030-2421)				
		담당자	김미영 (031-8030-2424)				

경기도 · 파주시, ‘DMZ OPEN 전시: 스테이징’ 공동 개최

- 경기도·파주시, ‘DMZ OPEN 페스티벌’ 일환으로 10월 12일부터 11월 29일 까지 《DMZ OPEN 전시: 스테이징》 공동 개최
 - 브뤼노 라투르의 '스테이징(Staging)' 개념을 빌려 DMZ를 인간과 비인간, 역사와 현재가 관계 맺는 무대로 제안
 - 국내외 작가 14명, 회화·사진·영상·설치 26점을 민통선 내 캠프그리브스 일대와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전시
 - 안규철, 자닌 랜더슨, 이예은, 아브라함 크루즈비예가스 등 신작 다수 공개

경기도와 파주시는 ‘DMZ OPEN 페스티벌’의 하나로 10월 12일부터 11월 29일 까지 파주 DMZ 일대에서 현대미술전시 《DMZ OPEN 전시: 스테이징》을 공동 개최한다.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14명의 작품 총 26점이 민통선 내 캠프그리브스 일대(카페그리브스, 스튜디오BEQ, 갤러리그리브스, 다큐멘타 2관)와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전시된다.

전시 제목인 ‘스테이징(Staging)’은 프랑스의 과학기술학자 브뤼노 라투르(Bruno Latour)의 개념에서 빌려왔다. ‘스테이징’은 흔히 ‘무대 연출’로 번역되지만, 어떤 존재와 사실이 특정한 조건과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과정을 뜻하기도 한다. 라투르는 파스퇴르의 발효균 연구를 예로 들며, 미생물이 실험실과 관찰 장치, 연구자, 기록 방식이라는 관계망 속에서 비로소 인식 가능한 존재가 되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분단과 전쟁의 시간이 중첩되고 인간과 비인간의 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힌 DMZ를 하나의 무대로 전환해, 그 안에서 공존해 온 다양한 존재와 조건을 드러내 보자는 기획의도를 담았다.

이번 전시를 기획한 김선정(아트선재센터 예술감독) 큐레이터는 “《DMZ OPEN 전시: 스테이징》은 DMZ를 단순히 작품을 보여주는 공간이 아니라, 인간과 비인간, 사물과 환경, 역사와 현재가 서로 관계를 맺고 드러나는 하나의 무대로 전환하려는 시도”라며 “DMZ를 분단과 갈등의 상징을 넘어 수많은 존재가 서로를 마주하고 관계를 맺는 동적인 장소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시 의의를 밝혔다.

전시에서는 1997년 첫 개인전 작품을 재제작한 박찬경의 〈블랙박스: 냉전 이미지의 기억〉, 한국전쟁 이후 DMZ에 파견된 스위스 중립국감독위원회 장교들이 1953년부터 1980년까지 남긴 기록으로 ‘중립’의 시선을 되짚는 데니스 베르치(Denise Bertschi)의 〈스테이트 픽션. 겉으로만 중립적인〉, 미국 영화·방송 산업과 미군의 관계를 8년간 추적한 애비게일 라파엘 콜린스(Abigail Raphael Collins)의 실험 다큐멘터리 〈블랙아웃〉이 전시된다.

또 전쟁과 분단의 시간이 개인의 삶에 남긴 흔적을 살피는 작업을 선보인다. 미국 42개 주를 횡단하며 참전용사와 그 가족의 삶을 기록한 윤수연의 〈홈커밍〉 연작, 한국의 젊은 군인 초상으로 분단 체제의 역설을 드러내는 오형근의 〈부조리 극〉 연작, 일제강점기와 냉전을 겪은 외할머니의 뇌파를 3D 프린팅 백자로 옮긴 정가희의 〈할머니/가보〉, 북한 선전화의 형식을 빌려 남북 청소년이 함께 어울리는 풍경을 그린 선무의 〈봄놀이〉가 그것이다.

이번 전시를 위해 제작된 신작들도 다수 공개된다. 자닌 랜더슨(Janine Randerson)은 소설가 이현, 사운드 아티스트 레이첼 시어러(Rachel Shearer)와 협업한 영상 〈비무장화하는 이끼〉에서 철원 민통선 안 벙커와 방공호, 초소 등 군사 시설을 덮으며 자라난 이끼의 시점으로 전쟁 이후에도 지속되는 생명과 시간을 상상한다. 안규철은 다리·등받이·좌판이 제거된 아홉 개의 의자로 부재와 정전(停戰)의 긴장을 돌아본다. 이예은은 통일촌(백연리) 주민들이 내어준 일상의 물건을 쌓아 올린 탑을 사진으로 기록하며, 이요나는 신호등·가로등 등 이동을 상징하는 사물을 닫힌 스테인리스 구조 안에 배치한 〈대기실〉로 분단으로 단절된 이동의 현실을 드러낸다.

이와 함께 아브라함 크루즈비예가스(Abraham Cruzvillegas)는 DMZ를 오가는 여정에서 수집한 인쇄물을 UN을 상징하는 푸른색으로 덮어 뒤집어 건 대형 벽면 작업을, 연진영은 군대 화장실을 배경으로 ‘룩스맥싱(looksmaxxing. 외모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행위)’ 문화와 군대가 만들어내는 남성성을 다룬 설치 작업을, 최진욱은 2024년 겨울 이후의 광장과 임진각 망배단 앞 관람객의 뒷모습 등 DMZ와 동시대를 둘러싼 풍경을 담은 회화 신작을 선보인다.

전시와 더불어 진행되는 연계 프로그램 ‘전시플러스’에서는 경기도 DMZ 일원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삿, 수달, 두루미를 소개하는 《DMZ의 작은 주민들》, 초등학생 아이들과 함께 전시 참여 작가 이예은의 작품을 재해석하는 《마음이 모여 터를 잡아요》 등이 관람객과 함께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선을 열어 삶을 잇다(Open the Line, Connect the Life)’를 주제로 DMZ의 가치를 확산하는 DMZ OPEN 페스티벌은 10월부터 11월 말까지 파주·고양 등 DMZ 일원에서 이어진다. 《DMZ OPEN 전시: 스테이징》을 비롯해 평화의 메시지를 음악으로 전하는 DMZ OPEN 국제음악제, 생태와 평화를 논의하는 DMZ OPEN 에코피스포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박현석 평화협력국장은 “DMZ는 지난 70년간 서로를 겨누 총칼과 철책의 냉혹함 속에서, 지구상 가장 때 묻지 않은 생태계가 숨을 쉬며 인류 전체의 위대한 자산으로 자라났다”며 “분단이 막아선 자리에 문화와 예술, 그리고 연대의 힘을 채우겠다”고 밝혔다.

손배찬 파주시장은 “예술은 보이지 않던 것을 보게 하고, 익숙했던 공간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한다”며 “파주의 역사적 공간인 캠프그리브스와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펼쳐질 이번 전시를 통해 DMZ에 새겨진 역사와 생명의 흔적을 돌아보고, 평화와 공존의 가능성을 함께 상상해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 DMZ OPEN 페스티벌 일환으로 개최하는 '26년 「DMZ OPEN 전시」 세부계획임
- 금년도 전시는 '스테이징(Staging)'이라는 주제로 파주 민통선 내 캠프그리브스 일대와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전시 예정임

□ 전시개요

- 전시명: DMZ OPEN 전시: 스테이징 (DMZ OPEN EXHIBITION: STAGING)
- 전시기간: '26. 10. 12.(월) ~ 11. 29.(일)
- 전시장소: 캠프그리브스 일대,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
- 주최: 경기도, 파주시
- 주관: 경기도
- 후원: 경기관광공사, 스위스 예술위원회 프로 헬베티아

□ 주요내용

- 규모 : 총 14명 작가, 회화·사진·영상·설치 26점
 - 참여작가: 자닌 랜더슨(Janine Randerson, 뉴질랜드), 박찬경, 데니스 베르치(Denise Bertschi, 스위스), 선무, 안규철, 연진영, 오형근, 윤수연, 이예은, 이요나(뉴질랜드), 정가희, 최진욱, 애비게일 라파엘 콜린스(Abigail Raphael Collins, 미국), 아브라함 크루즈비예가스(Abraham Cruzvillegas, 멕시코)
 - 브뤼노 라투르의 '스테이징' 개념을 빌려 DMZ를 인간과 비인간이 관계 맺는 무대로 제안
 - 냉전의 이미지·기록과 전쟁 이후 개인의 삶에 남은 흔적을 추적하는 작업 소개
 - 통일촌 주민, 과학자, 소설가 등과의 협업으로 제작된 신작 다수 공개
- 주요 참여작품
 - 박찬경: 1997년 첫 개인전 〈블랙박스: 냉전 이미지의 기억〉을 재제작, 사진과 글로 냉전 이미지의 작동 방식을 탐구
 - 데니스 베르치: 1953-1980년 스위스 중립국감독위원회 장교들이 촬영한 아카이브로 구성한 70분 필름
 - 안규철: 일부가 제거된 아홉 개의 빈 의자로 부재와 정전의 긴장을 형상화한 신작
 - 자닌 랜더슨: 철원 민통선 안 군사 시설을 덮은 이끼의 시점으로 전쟁 이후의 생명과 시간을 그린 영상(소설가 이현 각본)
 - 이예은: 통일촌(백연리) 주민들의 물건으로 쌓은 탑을 기록한 대형 사진 프린트 연작

□ 주요일정

개막식	DMZ 전시(파주)	부대프로그램
○ 10. 12.(월) 12:30 ○ 캠프그리브스 ○ 평화협력국장, 전문가 등 80여명 ○ 개막식, 전시 투어 및 관람 등	○ 10. 12. ~ 11. 29. ○ 캠프그리브스 일대, 임진각 평화누리 ○ 14명 26점 작품	○ 전시플러스 ○ DMZ 멸종위기 야생생물 생태 콘텐츠 전시 ○ 도민 연계 어린이 참여 워크숍

□ 공간별 관람시간 안내

- 캠프그리브스: 2026. 10. 12.(월) - 11. 29.(일), 09:00 ~ 17:00 (월요일 휴관)
-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 2026. 10. 12.(월) - 11. 29.(일), 운영시간 제한 없음, 자유 관람

참고1 큐레이터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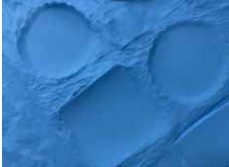
◆ 김선정은 아트선재센터에서 수석 큐레이터 겸 부관장(1993-2004), 관장(2016-2017)을 지냈으며, 현재 예술감독(2022-)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제근현대미술관위원회(CIMAM) 이사(2026-) 및 아시아태평양지역협의회(ASPAC) 집행위원을 맡고 있으며, 국제박물관협의회 한국위원회(ICOM Korea) 위원장(2023-2025), 광주비엔날레재단 대표이사(2017-2021),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정보원 예술감독(2014-2015)을 역임했다. 또한, 2011년부터 미술관의 경계를 넘어 비무장지대(DMZ)의 보이지 않는 경계를 예술의 비판적 시각으로 탐구하고 분단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기 위해 시작된 예술 및 연구 프로젝트인 리얼디엠지프로젝트의 설립자이며 예술감독으로 재임하고 있다.

참고2 관련 자료

참고3

장소별/작가별 작품소개, 작가소개

1. 카페그리브스

연번	장소	작품 정보	작품 소개
1	카페 그리브스	 안규철, 〈아홉 개의 의자〉, 2026, 나무, 가변크기. 이미지 제공: 안규철 제작(Google Gemini 생성)	안규철(b.1955)은 일상의 사물을 해체하고 다시 엮어 그 이면의 의미를 탐색해 온 작가다. 신작 〈아홉 개의 의자〉는 다리·등받이·좌판이 각각 제거된 의자들과, 그 파편을 모아 만든 아홉 번째 의자가 느슨한 원형으로 마주 놓인 설치다. 상실과 부재로 묶인 빈 의자들 사이를 거닐며, 관객은 멈춘 채 유지되는 정전(停戰)의 긴장을 몸으로 마주한다.
2	카페 그리브스	 박찬경, 〈블랙박스: 냉전 이미지의 기억〉, 1997(재제작 2026), 사진, 글, 가변크기(재제작: 33×50cm, 25점), 작가 제공	박찬경(b.1965)은 분단과 냉전, 전통과 종교 문화를 주제로 글·사진·영화·설치 작업을 해 왔다. 〈블랙박스: 냉전 이미지의 기억〉은 1993년 열린 대통령이 대한항공기 블랙박스를 건네는 보도사진에서 출발한 1997년 첫 개인전이다. 블랙박스는 이후 비어 있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번 전시에서는 작가가 촬영한 사진과 짧은 에세이로 재제작되었다. 보이는 이미지와 보이지 않는 실재 사이의 간극을 통해, 작품은 이미지가 넘쳐나는 오늘 우리가 무엇을 보고 기억할지를 묻는다.
3	카페 그리브스	 아브라함 크루즈비에가스, 〈차고 알바라도가 작곡하고 위대한 조니 알비노가 감미롭고 섬세한 벨벳 같은 목소리로 부른 트리오 산 후안의 'Siete Notas De Amor'를 들으며, 길가 기사식당의 맛있는 작은 새우와 마늘 향이 났던 새우, 콩국수의 뽀얀 국물 맛을 아직도 음미하면서, 'Status quo ante bellum'이라는 문장의 의미를 이해해 보려 애쓰는 뒤늦고 한물간 다자주의적 정거방위도법으로 투영된 눈먼 자화상(PMS 202925/HEX #009EDB)〉, 2026, 물감을 칠한 인쇄물, 핀, 가변크기, 작가 제공	아브라함 크루즈비에가스(b.1968)는 주어진 재료로 손수 집을 짓고 고쳐 가는 '자가건축(autoconstrucción)'의 태도로 재료와 공간의 관계를 실험해 왔다. 이 작품은 작가가 '눈먼 자화상(Blind Self Portrait)'이라 부르는 연작 중 하나다. 그는 일상에서 주운 종이들, 신문, 리플릿, 엽서, 티켓, 냅킨 등을 UN을 상징하는 색인 푸른색 물감으로 덮은 뒤, 인쇄된 면이 벽을 향하도록 뒤집어 핀으로 고정한다. 글자와 이미지가 가려지며, 종이에 담겼던 정보는 읽을 수 없는 하나의 사물로 바뀐다. 작가의 말처럼 "정보가 하나의 오브제로 변환"된다. 이번 작품의 종이들은 작가가 한국의 비무장지대(DMZ)를 다녀오는 여정에서 모은 것이다. 낱장들은 벽 한가운데에서 시작해 나선을 그리며 바깥으로 배치되고, 관객은 종이를 직접 들어 올려 물감에 가려진 뒷면을 확인할 수 있다. DMZ가 남북을 가르는 선이자 정보가 선별되어 드나드는 관문이듯, 본 작품에서도 정보는 가려지고, 뒤집히고, 다시 배치된다. DMZ로의 궤적을 구성하는 다종의 정보들 속에서 무엇이 드러나고 무엇이 감춰지는지 관객의 손에 맡겨진다.
4	카페 그리브스	 선무, 〈봄놀이〉, 2026, 캔버스에 유채, 130.3×387.8cm 사진: 이의록, 작가 및 경기도 제공	북한에서 미술을 전공하고 탈북한 선무(b.1972)는 선전화와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시각 언어를 빌려 분단과 이데올로기의 경계를 넘나들어 왔다. 〈봄놀이〉는 어린 시절 북한에서 경험한 나들이의 기억에서 출발해, 남과 북의 청소년들이 한 강가에서 음식을 짓고 어울리는 장면을 가로로 긴 화폭에 담았다. 체제를 찬양하던 선전화의 형식은 여기서 함께 하루를 보내는 공동체의 풍경으로 옮겨가, 단절 너머의 만남을 상상하게 한다.

2. 스튜디오 BEQ

연번	장소	작품 정보	작품 소개
5	스튜디오 BEQ	 데니스 베르치, 〈스테이트 픽션. 겉으로만 중립적인〉, 2021, HD 필름, 70분, 작가 제공	스위스 기반의 작가이자 연구자 데니스 베르치(b.1983)는 시각 문화·건축·역사의 교차점에서 '중립'을 표방해 온 스위스의 시선 이면을 탐구해 왔다. 작가는 2014년과 2026년 직접 DMZ를 방문해, 스위스 캠프와 함께 DMZ의 풍경을 촬영한 바 있다. 그 방문의 연장선상으로 제작한 〈스테이트 픽션. 겉으로만 중립적인〉은 그가 오랫동안 진행해 온 프로젝트 〈스테이트 픽션〉의 일부다. 이 프로젝트는 정전협정 이행을 감독하기 위해 한국에 파견된 스위스 중립국 감독위원회 대표단과 장교들이 남긴 기록에서 출발한다. DMZ의 군사화된 풍경, 당시 스위스 캠프, 한국인들과의 만남, 여가 시간 등이 담긴 이 사진·영상 자료는 현재 스위스 베른의 연방·군 중앙도서관에 보존되어 있다. 작가는 이 기록들을 따라가며 스위스가 수행한 역할과 이해관계의 망을 되짚는다. 전시장에 설치된 영상은 전적으로 1953년부터 1980년까지 스위스 장교들이 촬영한 아카이브로 구성된다. 작가의 보이스오버나 대사 없이 DMZ에서 녹음된 음원, 군 보고서, 개인 일기, 한국에서 촬영한 영상을 치밀하게 병치하고 편집함으로써, '중립적' 군인들의 식민주의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시선을 드러낸다. 관객은 '중립'이라는 말 뒤에 가려져 있던 은밀한 시선을, 반세기 전 스위스 장교들이 남긴 이미지 속에서 되짚어보게 된다.

3. 갤러리그리브스

연번	장소	작품 정보(참고이미지)	작품 소개
6-8	갤러리 그리브스	   오형근,〈웃고 있는 병장과 치렷한 이병, 2010년 10월 21일〉, 2010, 아카이벌 피그먼트 프린트, 110×146cm, 작가 제공 오형근,〈체육복을 입은 상병과 일병, 2010년 4월 25일〉, 2010, 아카이벌 피그먼트 프린트, 120×160cm, 작가 제공 오형근,〈판초우의를 입고 위장막 앞에 선 군인, 2011년 4월 22일〉, 2011, 아카이벌 피그먼트 프린트, 100×133cm, 작가 제공	오형근(b.1963)은 아줌마, 여고생, 군인 등 개인과 집단 사이에 놓인 초상을 통해 한국 사회의 징후와 시대적 감수성을 읽어 온 사진가다. 〈부조리 극〉연작은 오형근이 한국의 젊은 군인을 촬영한 초상 작업이다. 2011년 〈중간인〉으로 소개되었던 작품을, 본래 제목인 〈부조리 극〉으로 다시 선보인다. 1953년 정전협정 이후 70년 넘게 평화는 유예되어 왔다. 작가의 말에 따르면, 냉전 시대에 군인은 국가를 지키는 "절대적 상징"이었지만, 오늘날에는 그 의미가 희미해졌다. 사진 속 군인들은 전쟁을 경험하지 않으면서도 전쟁과 분쟁을 전제로 작동하는 체제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며 살아간다. 한 인물 안에 국가와 개인, 전쟁과 평화, 규율과 자유가 공존하며, 작가는 이 모순을 극적인 사건이나 가시적인 군사적 긴장이 아니라 개인의 몸과 표정에서 찾는다. "과거의 체제와 오늘의 가치가 공존하는 현실"의 부조리가 군인들의 무표정한 얼굴과 절제된 자세로 드러난다. 관객은 그 초상들로 분단 체제의 역설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된다.

연번	장소	작품 정보(참고이미지)	작품 소개
9	갤러리 그리브스	 애비게일 라파엘 콜린스, <블랙아웃>, 2025, 비디오 설치, 컬러, 사운드, 41분, 가변크기, 작가 제공	로스앤젤레스 기반의 애비게일 라파엘 콜린스(b.1986)는 소리와 침묵이 역사에 접근하는 방식을 실험적 무빙 이미지로 탐구해 왔다. 8년간의 조사 끝에 완성한 <블랙아웃>은 미국 영화·방송 산업과 군이 서로를 필요로 하는 관계를 추적하는 실험 다큐멘터리다. 작가는 시나리오 작가, 종군 촬영기사, 그리고 군인 역을 자주 맡아 온 메소드 배우인 자신의 아버지를 통해 이 관계를 드러낸다. 작품은 전쟁 이후 남겨진 이들의 침묵과 허구적 콘텐츠가 전쟁과 맺어 온 관계를 되묻는다.
10 -11	갤러리 그리브스	 최진욱, <474. 빛, 어둠, 역사의 여인 - 삼부작>, 2025, 캔버스에 아크릴, 130.3×193.9cm, 193.9×130.3cm, 130.3×193.9cm, 작가 제공 최진욱, <497. 뒷모습 - 삼부작>, 2026, 캔버스에 유채, 53×45.5cm×3점, 작가 제공	최진욱(b.1956)은 '감성적 리얼리즘'을 내세워, 직접 겪은 동시대의 장면을 감각적인 색과 이미지로 그려 온 화가다. <474. 빛, 어둠, 역사의 여인 - 삼부작>은 2025년 1월의 '키세스 시위대', 공권력의 풍경, 작가의 작업실을 나란히 놓는다. 신작 <497. 뒷모습 - 삼부작>은 북한 어린이들, 임진각 망배단 앞 관람객, 작가 자신의 뒷모습을 잇는다. 서로 다른 시공간의 장면들은 한자리에서 서로를 비추며, 무언가를 응시하는 뒷모습 위에 관객의 자리까지 포갠다.
12 -13	갤러리 그리브스	 윤수연, <조와 담배>, 2007, 사진, 가변 크기, 작가 제공 윤수연, <말로니 판사>, 2008, 사진, 가변크기, 작가 제공	윤수연(b.1972)은 특정 전쟁의 서사를 재현하는 대신 전쟁을 겪은 사람들의 일상을 기록해 온 사진가다. <홈커밍> 연작은 2006~2008년 미국 42개 주를 횡단하며 제2차 세계대전부터 이라크 전쟁까지의 참전군인을 인터뷰하고, 그들의 사적인 공간을 대형 포맷 컬러 필름으로 촬영한 프로젝트다. 이번 전시에서는 한국전쟁 참전군인을 담은 사진 두 점을 통해,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의 삶에 남은 구조로서의 전쟁을 보여준다.
14	갤러리 그리브스	 자닌 랜더슨, 레이철 시어러, 이현, <비무장화하는 이끼>, 2026, 4K 비디오, 사운드, 10분 8초, 작가 제공	뉴질랜드 작가 자닌 랜더슨(b.1974)은 대기·날씨·생태계를 매체로, 인간과 비인간 존재가 기후 생태계에 얽혀 있는 방식을 관찰해 왔다. <비무장화하는 이끼>는 철원 민간인출입통제선 안에서 군사 시설을 가장 먼저 덮으며 자라난 이끼에 주목한 영상으로, 레이철 시어러(사운드), 소설가 이현(각본)과 협업했다. 작품은 한탄강 기슭, 소이산 벙커, 망배단 부근 참호 등에서 이끼가 감지해 왔을 전쟁의 기억을 상상하며, 국경을 넘어 퍼져 나가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15	갤러리 그리브스	 정가희, <할머니/가보>, 2015, 비디오 설치: 단채널 HD 비디오, 컬러, 사운드, 6분 25초, 작가 제공	정가희(b.1986)는 기술과 사회 변화의 속도 사이에서 생기는 균열을 탐구하는 시각예술가이자 영화감독이다. <할머니/가보>는 일제강점기와 냉전을 겪은 외할머니의 뇌파를 측정해 영상화, 그 데이터로 3D 프린팅한 백자 형태의 오브제로 구성된 설치 작업이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한 개인의 기억과 감정을 조각이자 데이터로 전환하며, 작품은 기억을 읽고 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다.

4. 다큐멘타 2관

연번	장소	작품 정보	작품 소개
16 -21	다큐멘타 2관	 연진영, 〈변화하는 군복〉, 2026, 미군 오리지널 전투복, 가변크기, 작가 제공	연진영, 〈알고리즘적 자아〉, 2026, 투명 PET 필름에 UV 인쇄, 46.5×61cm 연진영, 〈맥싱〉, 2026, 수건에 UV 인쇄, 가변크기 연진영, 〈개인정비〉, 2026, 꽃무늬를 입힌 라텍스, 레진, 패브릭, 미군 화생방 마스크, LED, 가변크기 연진영, 〈소변기 꾸미기〉, 2026, 소변기, 비즈, 가변크기 연진영, 〈맥싱룸〉, 2026, 미군 오리지널 군화, 파일럿 장갑, 용접복, 미군 더플백, 가변크기 연진영(b.1993)은 기능과 수명을 다한 사물을 엮고 꺾매어 새로운 움직임과 생명감을 부여해 온 작가다. 이번 신작은 다큐멘타 2관의 화장실에서 출발한다. 사적인 공간이면서 군대의 규율이 작동하는 이 이중적 공간에서, 작가는 남성이 스스로를 다듬는 방식을 소셜미디어의 '룩스맥싱(looksmaxxing)' 문화와 겹쳐 놓는다. 미군 군복과 군화, 라텍스를 입힌 화생방마스크, 비즈로 꾸민 소변기 등이 한 공간에 모여, 관객이 신체를 구성하는 문화와 이미지에 스스로를 비춰 보게 한다.

5.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

연번	장소	작품 정보	작품 소개
22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	 참고이미지: 이요나, 〈램프 인 트랜짓〉, 2024, 캔버스유채, 60×72cm, 작가 및 파인 아트 시드니 제공	이요나, 〈대기실〉, 2026, 스테인리스 스틸, 사물, 400×410×310cm 부산에서 태어나 뉴질랜드로 이주한 이요나(b.1986)는 스테인리스 스틸 파이프와 도시 인프라의 사물을 결합해 공간의 질서를 다시 짜는 설치 작가다. 신작 〈대기실〉은 남북을 자유롭게 오갈 수 없는 현실에서 출발한다. 공간 밖으로 뻗어 나가던 기존 작업과 달리, 이번 작품의 파이프는 직육면체 구조 안에서 거둬 끼이며 닫힌 형태를 이룬다. 그 안에 얹힌 신호등·가로등·버스 손잡이 같은 이동의 사물들은 밖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갇혀, 이동과 제한이 공존하는 DMZ의 역설을 관객이 걸어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세운다.
23 -26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	 * 이예은, 〈백연리의 사람들, 제 1장〉, 2026, 천 위에 염료 프린트, 300×240cm, 작가 제공	이예은, 〈백연리의 사람들, 제 2장〉, 2026, 천 위에 염료 프린트, 300×240cm 이예은, 〈백연리의 사람들, 제 3장〉, 2026, 천 위에 염료 프린트, 300×240cm 이예은, 〈백연리의 사람들, 제 4장〉, 2026, 천 위에 염료 프린트, 300×240cm 이예은(b.1994)은 사진을 매개로 평범한 개인의 일상에 주목해 온 작가로, 여러 사람에게 받은 물건으로 탑을 쌓아 기록하는 작업을 이어 왔다. 〈백연리의 사람들〉은 1970년대 안보와 영농을 위한 시범 농촌으로 조성된 접경 마을 통일촌 백연리 주민들의 물건으로 만든 신작이다. 주민들이 내어 준 사소하지만 의미 있는 물건들은 그들의 터 위에서 서로를 딛고 균형을 이루며, 흔들림 속에서도 이어지는 삶과 관계를 드러낸다.